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공주시 동물학대 현장 구조 말 입양 현황과
말 복지 정책 중심으로



일시 2025년 2월 20일(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주관 문대림 국회의원실, 말복지수립대책위원회

세부 내용 및 순서

시간	내용	
14:00~14:1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정진아 사회변화팀장(동물자유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환영사 : 문대림 국회의원
	기념촬영	
14:10~15:00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1 : 조현정 활동가(동물권행동 카라) “공주시 말 학대 사건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 발제 2 : 안나현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말 복지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
15:00~16:0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오옥만 보좌관(문대림 국회의원실) - 강한별 코치 (프리밀리션수단) - 이수현 대표 (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 백재관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성언 말등록복지센터장 (한국마사회) -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동물자유연대) - 김세현 대표 (비글구조네트워크) - 김란영 대표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 강택 대표(TK승마센터)
16:00~16: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목 차

환영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p
발제 1	공주시 말 학대 사건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조현정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7p
발제 2	말 복지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 안나현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21p
토론 1	강한별 코치 (프리밀리션수단)	29p
토론 2	백설이를 입양하며 이수현 대표 (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33p
토론 3	백재관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39p
토론 4	공주시 말 유통업체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유성언 말등록복지센터장 (한국마사회)	41p
토론 5	동물자유연대 현장 대응 사례를 통해 보는 산업 속 말 복지 문제와 대책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동물자유연대)	55p
토론 6	김세현 대표 (비글구조네트워크)	65p
토론 7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퇴역마 생츠퍼리(안식처)’ 방안 김란영 대표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67p
토론 8	강택 대표 (TK승마센터)	75p

환영사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말의 고장 제주의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입니다. 말 복지 과제를 논의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말 복지 담당 직원분들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분들 그리고 공주시 목장에서 구조한 말들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신 입양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공주시에서 발생한 말 학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방치된 채 고통 속에 죽어간 말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좌담회는 공주시 폐축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말 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입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말 복지 개선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공주시 사건에

서 살아남은 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말들이 조금 더 힘차게 달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말 구조부터 입양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여러분과 입양으로 말들의 따뜻한 미래를 약속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말의 고향인 만큼 저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발제 1

공주시 말 학대 사건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조현정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공주시 말 학대 사건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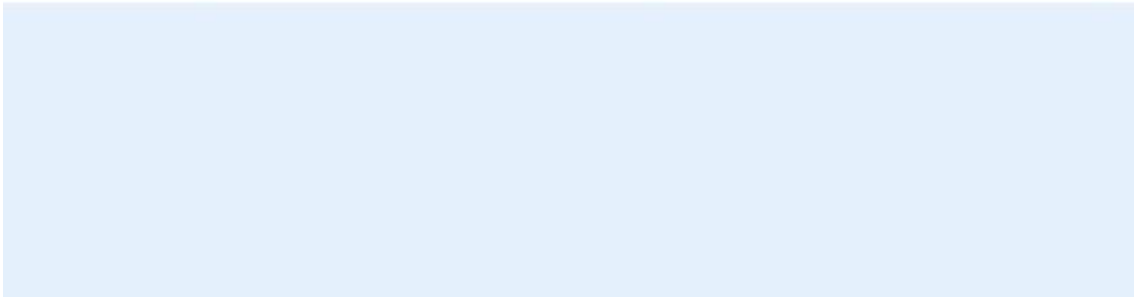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목차

1. 공주시 말 학대·방치 사건 대응 경과
2. 피학대 말 입양 현황
3. 말 복지 개선 위한 향후 계획과 정책 제시

01

공주시 말 학대·방치 사건 대응 경과



소위 '폐마목장' 동물 학대 사건

- 2024년 10월 15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무허가 말 사육 농장에서 학대로 인해 사망한 말 사체들과 방치된 15마리 말 발견됨
- 인간의 기준에서 쓰임을 다한 퇴역마와 승용마 등이 버려지는 소위 '폐마목장' 실상 드러남



소위 '폐마목장' 동물 학대 사건

곳곳에 말 사체...공주 말 농장서 동물학대·불법도축 정황

6/24/2024 10:15:13AM EST



'나뭇구는 사체' 지옥의 말 농장..남겨진 말 "알날도 짬짬" |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소위 '폐마목장' 동물 학대 사건

- 분노 속에서 말들의 뼈 다수 확인. 방치된 말들은 물과 사료를 제공받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상태
- 인근 주민들, "해당 현장에서 수년 전부터 불법 도축이 암암리에 이뤄졌다"
- 현장에서 잘린 말 꼬리, 백골화된 말 머리, 전기 쇠톱 발견



사건 대응 경과 – 경찰 고발

- 10월 15일 이후로도 농장주는 말 4마리를 공주시 현장에 추가로 데려옴. 그중 1마리가 10월 24일 사망하고 10월 25일 말 1마리 잇따라 사망
- 사인 규명 위해 말 사체는 공주경찰서에 의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농장주 경찰 고발
 -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발인은 2022년에 부여에 위치한 폐축사에 말 4마리를 방치해 그중 2마리를 아사시킨 전력이 있음
- 학대자 강력 처벌 촉구하는 2,775명 시민 탄원 서명 제출

사건 대응 경과 – 피학대 말 보호

- 범대위, 학대 현장에서 살아남은 말들에 대해 10월 22일 공주시에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요구
- 공주시 동물보호팀, 말 사체와 방치 현장 확인 후에도 동물학대 불인정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절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사건 대응 경과 – 피학대 말 보호

- 피학대 말 소유권 넘겨받은 범대위, 현장 돌봄 시작
- 시민 봉사자의 돌봄 지원, 말 개체별 건강 검진과 치료 진행
- 말 입양 절차 마련 및 입양 홍보



사건 대응 경과 – 대책 마련 촉구

- 10월 23일, '공주시 불법 농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말 사체, 퇴역마 학대 방지 위해 말 복지 법제화로 대책 마련하라!' 범대위 기자회견
- 11월 7일, '한국마사회는 거둬드는 피학대 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범대위 기자회견
- 10월 31일, 문대림 의원 주관으로 범대위-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국마사회 간담회 진행



사건 대응 경과 – 추모제

- 12월 1일, '공주시 페마목장 피학대 말들을 위한 추모제 - 달릴 수 없는 말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범대위 추모제



02

피학대 말 입양 현황

피학대 말 건강검진과 치료

- 피학대 말 건강검진 결과, 후지마비 증상 다수 발견됨
- 16마리 중 마르거나 매우 말라 영상상태 좋지 않은 말은 13마리에 이르렀음
- 급성 산통으로 짱구 사망(11/9)
- 신경계 손상으로 천지의빛 사망(12/13)



피학대 말 개체 정보

- 발견 당시 소유자 정보는 단 1마리만 정확하였으며, 살아있는 말 중 3마리는 '폐사'로 표기

번호	등록마명	나이	번호	등록마명	나이
1	바**	16세	9	골든***	10세
2	백**	22세	10	포세**	30세
3	천**	20세	11	장산**	7세
4	유**	24세	12	루비**	11세
5	미스티**	17세	13	함양**	6세
6	디아**	18세	14	푸른*	20세
7	레***	16세	15	아**	21세
8	신흥***	18세			

피학대 말 입양 현황

- 2024년 11월부터 3달여간 총 15마리 말 중 14마리 입양 완료. 말의 생이 다할 때까지 안정적 보호와 지속적 치료를 약속한 개인 또는 승마시설 등에 입양됨
- 현장의 열악한 환경 고려해 남은 유니콘은 임시보호처로 이동해 보호 중임
- 국내 말 보호시설 부재로 인해 민간의 노력으로 해소해야하는 피학대 말 보호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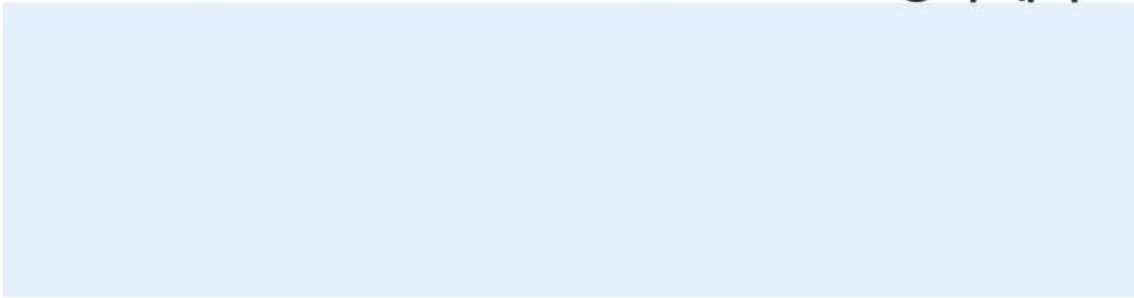


피학대 말 입양 현황



03

말 복지 개선 위한 향후 계획과 정책 제시



입양 개체 모니터링

- 말의 영양이 결핍되지 않으며 발굽 관리, 체계적 운동, 질병 치료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요구됨
- 입양기관 소통 및 입양 개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학대자 엄벌 촉구

- 말은 쾌고 감수성을 지닌 존재로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 해당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무척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말 복지 법·제도 개선 과제

- 말 복지 위한 법률 제정
- 말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위성곤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폐기됨

신·구조물대비표

현 황	개 정 안
<신 설>	<p>제16조의2(분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동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동물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용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p> <p>1. 제2조제6호에 따른 분사동물 2.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p>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복지 법·제도 개선 과제

- 경주마 번식 규제
 - 매년 1,300마리 이상 경주마가 은퇴하며 그중 절반 가량이 안락사되거나 도축됨. 경주마 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한해 은퇴하는 경주마 만큼이나 많은 수의 경주마 새로 탄생
 - 경주마 과잉생산과 육성으로 인해 생명을 폐기처분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고려해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함
- 말의 전 생애주기 관리 위한 이력제 의무화
 - 현재 국내 말 등록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체계 부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해 체험농장의 당나귀 등 포함한 모든 말에 대한 이력제 의무화 필요

말 복지 법·제도 개선 과제

- 폐마목장 전수조사 및 폐쇄
 - 공주시 말 학대 사건 사례 재발방지 위한 학대 장소인 폐마 목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시급
- 말 보호시설(Sanctuary) 조성
 - 퇴역경주마, 피학대 말 등이 머물 수 있는 말 보호시설 조성 필요



감사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발제 2

말 복지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

안나현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말 복지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

안나현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국내 말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말산업정보포털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부산에서 퇴역한 경주마는 총 1,201개체가 된다. 그 중 524개체가 승용(승용번식 포함) 용도로, 161개체가 번식용으로, 22개체가 용도미정(휴양)으로, '용도불명'을 포함한 기타 용도로 207개체가 이용되었으며, 276개체가 폐사했다. 용도불명으로 등록된 퇴역마들의 경우 현재 소재지 역시 '불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22년 생산된 두수 1,438개체 중 2살 이상이 되어 경주마로 등록된 두수는 1,271건인 점도 확인된다.

외부에 공개되는 위 정보만으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태어나 경주마로 활용되지 못하는 말들은 어떻게 되는가? 퇴역한 경주마들이 폐사하는 비율은 왜 이렇게 높으며 폐사 원인은 무엇인가? 퇴역한 후 그 소재와 용도가 불명으로 되는 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처럼 말 산업 전반을 아울러 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경주마들이 복지를 충족받지 못하거나 퇴역 후 즉시 말고기 등 용도로 도축 혹은 방치되어 폐사하거나 기타 영리 활동에 이용되면서 학대받는 현실이 뉴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방지, 개선할 법과 제도도 전무하다는 점이다.

말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첫째로, 동물보호법령의 개정을 통해 말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 기준을 갖추고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퇴역한 경주마의 새로운 삶과 복지를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난 2023년 위성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경주마에 대하여 예방접종비, 치료비, 기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퇴역하는 경주마에 대하여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 개정안은 단지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퇴역마를 안락사하라는

최소한의 내용이었음에도 서울 마주협회 등의 강한 반론에 부딪혔고,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향후 마련될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물론, 퇴역마에 대한 보호와 지원, 퇴역/구조마 입양기관/개인 지원에 대한 내용, 나아가 모든 ‘말’에 대한 복지 기준(말의 기본적 습성 및 특성을 반영) 및 소유자의 ‘말 복지 충족 의무’, 의무 불이행 시 ‘몰수(소유권 박탈)’ 조항 등이 담겨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말의 복지를 다루고 있는 여러 외국 법령을 참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말을 관리하고 기르는 데 있어 말에 특화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바(Animal Welfare Act 1999: Horses and Donkey), 말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적절한 인원이 말을 관리해야 하며, 말의 건강과 생리학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의 사료와 영양소를 매일 공급해줘야 하고 말의 건강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긴급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말들은 너무 습하거나 혹서, 혹한에 노출되면 안 되고 말이 사육되는 환경은 청결하고 안전하며 말이 편히 누울만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채광과 환기, 배수가 필요하며 암모니아 농도가 15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말은 15시간 이상 묶여있지 않아야 하며 매일 적절한 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승용마의 경우 전기충격기를 써서는 안 되며 막대기로 눈, 젖, 생식기, 항문 등 민감한 부위를 찌러선 안 되고 머리 주변을 쳐서도 안 된다. 말을 부득이하게 죽여야 할 때는 적절한 마취 등을 통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농장 및 시장에서 또는 전시나 수송 중에 말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Animals Act 1971, Animal Welfare Act 2006, The Welfare of Horses at Markets (and Other Places of Sale) Order 1990].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거나(열악한 날씨에 노출되게 하거나, 적절한 환기를 하지 않거나, 이동 중 끌고가거나, 채찍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러 넘어지도록 바닥 환경을 조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동물을 자극시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동물이 휴식할 공간, 사료 및 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절한 복지를 충족해주지 않는 경우 동물 소유가 금지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시장 및 기타 판매장소에서 지켜져야 할 말의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망아지의 경우 판매 전 판매 장소에서 어미 말과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말을 머리, 목, 귀, 다리, 꼬리로 들거나, 채찍, 막대기 등을 사용하거나, 말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히면 안 된다. 또한 최소 12시간마다 적절한 사료와 물을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건초 제공 등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말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판매장소의 관리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한 말이 보관되는 울타리에 말이 다칠 수 있는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말이 운송수단에서 내리고 탈 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전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퇴역마에 대해서는 영국경마협회 기금으로 퇴역마 재훈련 단체를 창설하고, '퇴역마의 숫자와 건강히 새로운 삶을 얻는 말의 숫자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말 도축 금지법 외에도 말의 복지를 위한 말 학대 방지법, 경마의 건전성 및 안전 보장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말이 과장되게 걷는 모양을 내도록 발굽에 열이나 자극을 주는 것(soring), 묘기를 위해 넘어뜨리는 것(tripping), 미용 목적으로 말의 꼬리를 자르거나 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의 Horse Protection Act에 따라 soring된 말을 전시, 매매, 경매 등에 참가 및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1971년부터는 야생마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Wild and Free-Roaming horses and Burros Act도 제정하였다. 한편, 말 복지 관할 정부기관(USDA)은 말고기 용도로 이동되는 말에 대해 감시하며, 미국 전반적으로 퇴역 경주마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 경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말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사료와 물 제공은 물론, 말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며,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고, 다른 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발굽, 치아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상해나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말에 대해 기본적인 습성과 신체적 필요에 대해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말을 관리하도록 하며 실제로 말을 소유하기 전에 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을 누가 실제로 관리할 것인지 등이 고려된다. 말에게 전기충격을 주거나, 날이 있는 덧을 사용하거나, 말이 빨리 달리도록 자극을 주는 장치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스위스는 동물보호의 기본법인 Animal Welfare Act 2005를 바탕으로 하여 2008년 Animal Welfare Ordinance 등 선진적인 동물보호법령을 통해 말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말의 뼈를 과다 굽히는 행위(hyperflexion), 가시나 철사가 있는 곳에서 기르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2015년부터는 다른 말들과 분리하여 개별 마구간에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귀, 입 부분을 면도(ear and muzzle shaving)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홍콩의 경우 홍콩 기수 클럽에서 선진화된 퇴역마 관리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퇴역마는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통해 향후 재사회화 방향이 결정되고, 공인된 전문가 집단이 퇴역마의 정신적, 신체적 재활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퇴역마의 소유자가 말 복지를 침해하면 즉각 개입하여 몰수 조치한다.

이 외에도 국제경마협회(IFHA)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말 복지 기준(Minimum

Horse Welfare Standard)의 내용을 참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 등록제도 개선 및 마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이력제는 퇴역 경주마의 이력 관리가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데이터도 일부 정확하지 않아 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착취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생산되는 모든 말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편리하고도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말의 전 생애가 정확하게 기록,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성공적으로 등록/이력제가 운용되고 있는 곳을 참고하여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정확한 이력을 추적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모든 말을 등록하여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말 여권을 받도록 하며, 말이 죽으면 30일 내에 해당 말의 여권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평생 동안 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EU 국가들은 2013년부터 모든 마주들에게 마이크로칩을 통해 말을 등록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스위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 등록 후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예를 들어 사육장소나 마주가 변경되거나, 30일 이상 이동이 있을 경우 등) 이를 연방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든 말을 네덜란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하며 마방과 말의 세세한 위치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소유자(마주를 포함)의 동물복지 충족 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마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마주의 책임과 자격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셋째로, 말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 학대 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시/감독기관 및 제도가 부재한 현실에서는 말에 대한 방치, 학대, 부적절한 대우를 방지할 수 없다. 위 첫 번째 항에서 언급한 말 복지 기준이 법으로 마련되면, 그러한 기준에 따라 말이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연구, 도입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미국승마연합(USEF)의 경우 경마대회 등에서 말 학대를 목격하면 양식을 작성해 USEF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주마가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생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과잉 생산은 곧 소위 ‘잉여’말들에 대한 학대나 죽임으로 이어진다. 현재, 태어나 경주마로 활용되지 못하는 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해 적정 생산 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경주

마들이 등록 후 퇴역하기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경주마가 과잉으로 생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마의 최소한의 복지 보장 뿐만 아니라 경주마의 퇴역 후 건강한 삶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의 복지를 등한시하는 말 이용 산업은 궁극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데에 사회적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 이를 실행할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1

강한별 코치
(프리밀리선수단)

2025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아래내용은 간략한 정리본입니다. 실제내용과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한별 코치(프리밀리션수단)

1. 말 이양 결심계기 및 느낀 감회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하는 일이라, 승마인의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느끼는 고충

열심히 복지를 지켜가며, 열심히 하는 승마장 및 말산업종사자들은 매우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는 몇몇곳은 복지는커녕 최소한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으며, 호의호식을 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승마인 및 말산업종사자들은 결국에 말이라는 산업형 동물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저희 월급을 주는 대상은 말이라는 동물입니다. 이리므로 정부 및 승마인의 큰집인 한국마사회는 이러한부분과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길을 더 열어주었으면합니다.

3. 민간승마장의 생각했을 때, 해결방안

말복지의 실태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정이 너무나 많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말등록이력 의무화

두 번째, 농림부 및 한국마사회의 강력한 대응

세 번째, 승마인 및 마주들의 대한 교육강화

네 번째, 모범승마장 선발 및 지원제도

다섯 번째, 예산증진 및 삭감안 재검토

여섯 번째. 민간승마장과의 소통의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2

백설이를 입양하며

이수현 대표
(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백설이를 입양하며

이수현 대표(일산승마 마음치유&트레이닝센터)

저는 2024년 공주시 폐마목장으로 알려진 곳에서 구조한 말들 중 한 마리인 '백설이'를 입양한 말집사입니다. 저는 동물매개치료 중 하나인 말 매개치유와 다른 나라의 말 매개치유 제도와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어 경기도 고양시에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말 그 자체 존재로써도 사람에게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믿어 그동안 다친 말들과 다른 사연이 있는 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에게 공주시 폐마목장에 있던 말들 중 한 마리라도 입양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말을 입양하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묘연이 있듯, 마연(馬煙)이 있던 것일까요. 어느날 사진첩을 들여다보다 불현 듯 백설이를 보고 이 아이가 아직 갈 곳이 없다면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한 이끌림에 인연이 되어 마지막 남은 2마리 중 한 마리인 백설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저에게 왔습니다.

말집사가 된다는 것은

간단히 작성하긴 했지만 위에 작성한 한 문단으로 말집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집사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말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나라와 사람들에게 허락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축산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축산법에 등록할 수 없으니 축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말산업육성법을 따른다' '소관이 아니다', '마사회에 물어봐라' '마사회는 제도적인 것을 알 수 없다.' '말산업컨설팅은 승마장설립만을 컨설팅한다' 등등 처음부터 난관이 많았고, 제가 하려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식물관련시설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에서 말치유산업이 '편의시설'이 되고 승마장이 '운동시설'인 반면 우리나라에는 혐오시설이라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고 소, 돼지, 닭에 중점인 축산업에는 말이 빠져 기댈 제도 또한 없었습니다. 말목장과 승마장을 짓는 것부터가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허가를 받아 말 집사가 되었습니다. 백설이와 다른 말을 입양하고 말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제가 운이 좋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말복지에 관하여

백설이도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말이 있을 공간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

니다. 목장에서 경마장으로 승마장으로.. 그리고 승마장에도 가지 못하거나 승마장에 서마저도 다치면 갈 곳이 한군데 밖에 남지 않습니다. 말 별로 돌아가야죠. 그 순환 과정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짧습니다. 나이가 든 말, 아픈 말, 다친 말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 복지는 백설이처럼 돌아갈 곳을 만들어 주는 것, 말들이 있을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소, 생츠퍼리, 목장, 승마장, 어디든, 어떤 이름이든, 말들이 돌아갈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경마장으로 경마장에서 승마장이나 도축장이 아닌, 마지막에 다시 목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말이죠. 더 많은 공간을 말들에게 내어주셔야 말들이 말들의 수명을 누리며 더 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좁지 않은 공간에서 더 뛰면서, 혹은 풀을 뜯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축산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치유농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 말 복지를 위한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매개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들이, 도축장이 아닌 목장에 돌아오면 말들은 '운동 선수'가 아닌 '치유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농가에는 부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해주니 말도, 사람도 좋은 윈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픈 말들이 치료사가 되었다가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승마장으로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농림축산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말들이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주세요. 어떤 이름이든, 보호소도 생츠퍼리도 목장도, 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목장을 허가 받아보니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많고, 그나마도 되는 공간은 각종 심의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들의 운동장을 만드는 곳에 아스팔트 바닥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 말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심의위원이 필요하고, 말들이 단순히 냄새나고 식용으로 쓰이는 가축이 아니라 다른 동물보다 운동선수로, 경마로, 치유사로, 운송수단으로 많은 직업을 가진 만능 재주꾼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치유농업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주세요. 말 농가들은 단순히 식용으로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능이 높아 역사 속에서 인간의 파트너로 지내온 말을 생산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인간과 함께 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들에게 운동선수로만 치중되지 않고 치유사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제도적 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사회에 부탁드립니다.

경마산업만큼 승마산업과 치유승마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것’이라는 것 말고도 타지 않고도 말과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세요. 치유승마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지금 너무 타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말과 함께 풀을 뜯기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용한 매개치료가 그렇듯, 말은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음에도 프로그램이 오직 타는 것에만 치중되어 많이 빈약하여 안타깝습니다.

동물단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먼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학대받는 것조차 모릅니다. 말의 습성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뭅니다. 공주 폐마목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이 노출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나쁘고 자극적인 것 말고도 좋은 내용도 지속적으로 뉴스, SNS, 기사 등등으로 노출되서 얼마나 말들이 말들이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가치가 있는 생명체인지를 잊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3

백재관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4

공주시 말 유통업체 처리경과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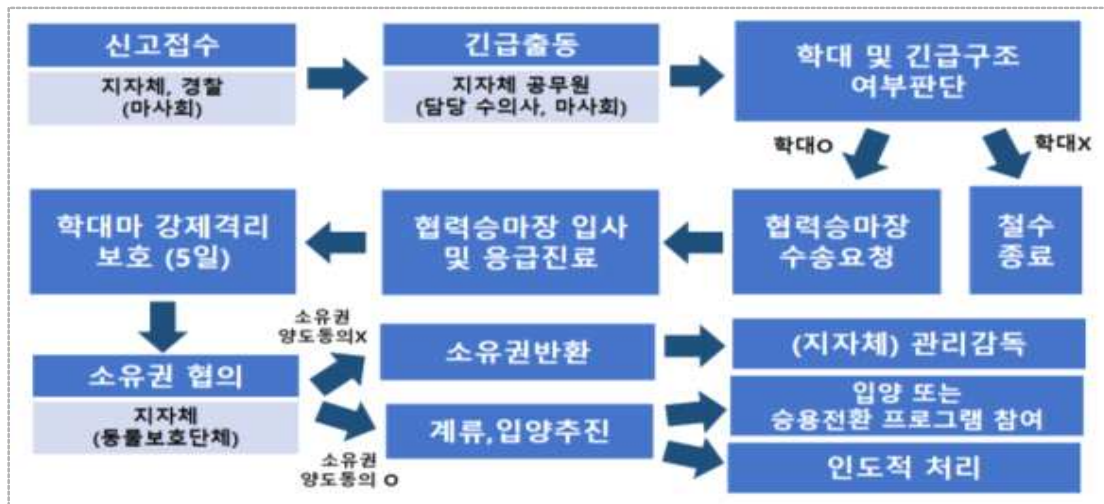
유성언 말등록복지센터장
(한국마사회)

공주시 말 유통업체 처리경과 및 향후계획

1 말 유통업체 사건 처리경과

- ('24.10.15. 최초 언론보도) 공주시 소재 목장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재산압류, 임차인(말 유통업자)이 말 관리 소홀, 영양불량, 폐사 발생
- ('24.10.18) 공주시 축산과와 대응방안 협의, 마사회 의료 지원팀과 현장점검 및 응급의료 지원
- ('24.10.28) 마사회 현장방문, 동물보호단체와 지원대책 논의
 - * 현장에 남은 말 16두 (경주퇴역마 6두)에 대해 입양 전까지 의료·사료 지원 합의
- ('24.11.1) 충남도청과 '말 긴급구호체계' 구축
 - * 긴급 구호체계 구축 지자체 : 말산업특구(경기, 전북, 경북, 제주) 및 충남

< 말 긴급구호체계 모식도 >



-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및 입양준비 지원 (진료, 마체검사, 사료 등)
- ('24.11.30) 현장 말 16두, 민간 승마장으로 입양완료 (2개월치 사료 추가지원)

가. 말 등록·이력제 고도화 및 도입 추진

- (현황) 말 등록 및 이력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율 신고제로 운영
 - * (한국마사회 제12조) 경주마의 마명·마주 등 이력정보 의무등록
 - * (말산업 실태조사) 국내 말 사육두수 27천두, **매년 1,400두 퇴역경주마 발생**
- (이력 보완)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말의 등록·이력정보를 갱신, **현장 정책사업*시 잘못된 이력정보는 즉시 정정**
 - * (백신접종사업 등) 상·하반기 약 18천두 개체 확인·접종
- (필요성) 자율신고제, 이력조사 불응 등 퇴역경주마의 이력 추적이 일부 불가하여 실효성 있는 이력관리가 필요
 - * 말 복지 간담회 ('22~'24, 7회) : 국회, 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마사회
 - * (실태조사) 말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실증연구 중 ('24~)
- (향후계획) 이력관리의 실효성, 축산업계 규제부담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논의하여 말 등록·이력 의무화 도입 준비
 - * (농식품부 주관, '24.10.30) **말 복지증진 추진협의체 개최**
 -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말 등록·이력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 공유 등
 - * (농식품부 입장, '24.11.5.) 퇴역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마련 중

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말복지 사각지대 파악 및 컨설팅

- (필요성) 말 복지 사각지대 예방대책 및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말 복지 우려시설 파악 필요
- (시행내용) 말 산업 실태조사(말 27천두, 2,600개 사업소), 방역관리내역 등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말 복지 우려시설 발굴
 - * 종사인력, 수입, 백신접종 내역 등 말복지와 연관성이 높은 항목 추출
- (향후계획) 하위 그룹 위주 말복지 컨설팅 우선지원, 하위 20%, 50% 등 구간별 맞춤형 복지지원대책 마련

다. 말 긴급구호체계 구축 확대

- (필요성) 말 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22.~'23.), 간담회(7회)에서 말 구조·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
- (지자체) 확대 말 보호를 위한 예산, 인력 부재로 구조·보호의 어려움
 - * (동물보호법 제 34조) 동물의 구조·보호는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담당
- (한국마사회) 적극적인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부족
-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는 행정지원, 마사회는 복지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확대 말을 위한 안전망 구축 협의
 - * 말산업특구(경기, 전북, 경북, 제주)와 구축('24.4월) 및 충남도청 추가('24.11월)
- (향후계획) 전국 지자체와 말 긴급구호체계 구축 확대 예정

- * **(추가예산 필요)** 현재 더러브렛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나 사업규모 확대로 전국단위 발생시 국가·지자체 예산 별도 배정 필요 (농식품부와 협의 중)

라. 퇴역경주마 대상 승용전환 등 수요처 다각화

- **(추진방향)** 말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며 퇴역경주마의 제2의 커리어(승용마)를 위한 지원대책 필요

- * 매년 1,400두 경주마가 퇴역, 퇴역경주마 중 약 **370두 (26.6%)가 승용마로 활용**

- **(수요처 다각화)**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품평회, 승마대회 개최

- **(승용전환 지원)** 퇴역 180개월 이내 경주마를 6개월 간 승용마로 훈련시키는 비용(6개월, 500만원) 지원 → 2회 전문가 심사로 인증

- * (以前 문제점) 퇴역경주마가 별도 교육훈련 없이 활용되어 안전사고 발생 다발

- * (성과) '23. 40두 → '24. **100두 (승용마로 유입되는 퇴역경주마의 1/3 수준)**

- * (퇴역경주마 가치상승) : 제도시행 前 30만원 내외 매매 → 제도시행 後 퇴역경주마를 구하기 어려우며 훈련 후 구매비용이 몇 백만원~천만원 수준으로 증가

- **(품평회1)** 국산마 조련성과 검증(품평·인증)을 통해 승

용마 가치제고 및 유통활성화 지원

* 성과 : ('24) 총 4회, 324두 참가(282두 인증), 승용마 거래건수 상승 (11두→17두)

○ (전용 승마대회) '24. 국내최초 퇴역경주마 승마대회 개최, 종목 난이도 조절, 특화 종목 개발 등 퇴역경주마 활용가치 증대 및 인식 개선 기여

* 성과 : '23. 0회 → '24. 2회, 말복지 특화종목 개최로 말복지 인식 전파

□ (향후계획) 승용전환 지원 대상('24. 100두 → '25. 120두) 및 승마대회 확대 ('24. 2회 → '25. 3회)

마. 말산업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말복지 교육 의무화

□ (추진내용) 말산업 지원사업 참여자는 사전에 말복지교육(온라인) 이수 의무화 → 말복지 인식개선 및 내재화

* ('24.2월) 농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말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포함

* ('24.2월) 온라인 말복지 교육 플랫폼 구축 완료

☞ '24. 말복지 교육 이수 2,032명 완료(온라인 1,737명, 대면교육 295명)

□ (향후계획) '25년 말복지 교육내용 현장의견 수렴 후 개선, 말복지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및 대상자 확대 등

1) 퇴역경주마의 행동, 조련상태 등을 평가하여 승용마로의 전환 여부 인증

참고1

말 유통업체 사건 대응경과

[언론보도]

(‘24.10.15. KBS) 말 사체가 무더기로... 2달 간 방치

- 퇴역 경주마 공주의 유통업체(목장)에서 임대인과 법적 분쟁으로 압류처분, 23마리의 말 방치, 말 사체 다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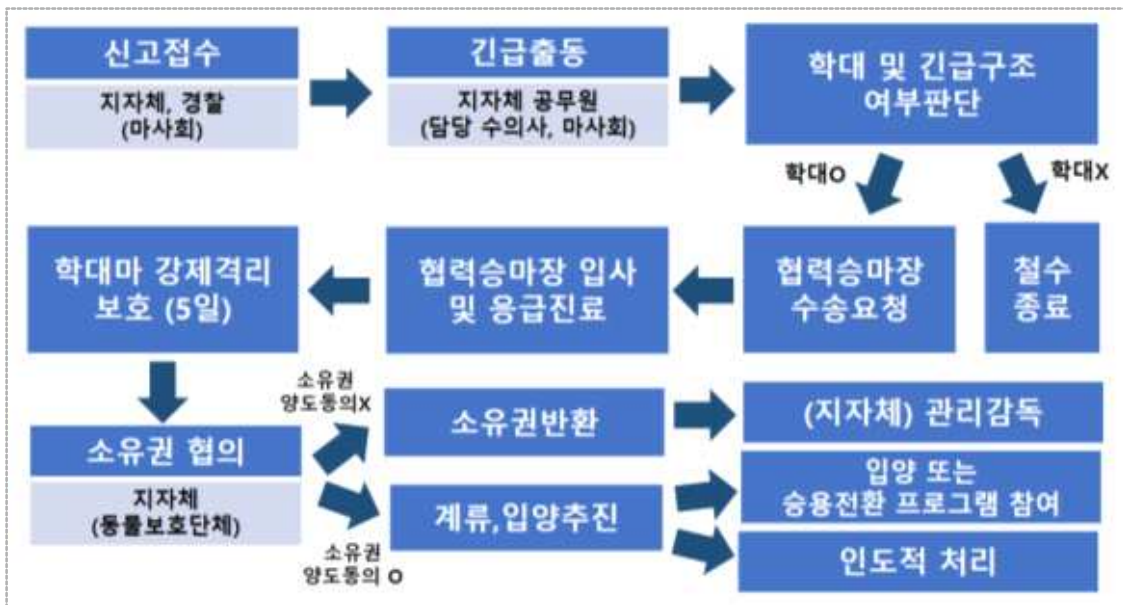
조치사항

- (충남 공주시 말 목장) 임대료 미납으로 재산압류, 임차인(말 유통업자)이 말 관리 소홀, 영양불량, 폐사 발생
- 마사회,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을 통한 현장 말 구호 및 입양 적극 지원 (16두 민간입양 완료)
 - (‘24.10.18) 공주시 축산과와 대응방안 협의, 마사회 의료 지원팀과 현장점검 및 응급의료 지원 (관리마 23두 중 7두 폐사, 16두 생존)
 - (‘24.10.28) 마사회 현장방문, 동물보호단체와 지원대책 논의
 - * 현장에 남은 말 16두 (경주퇴역마 6두)에 대한 입양 전까지 의료·사료 지원 합의
 - (‘24.11.1) 충남도청과 ‘말 긴급구호체계’ 구축 완료

- ('24.11.7) 동물보호단체 경주퇴역마 관리대책 마련 촉구 집회
 - * 마사회 간담회 시행 (마사회-동물보호단체 공동대응반 구성)
- ('24.11.8) 입양준비자료를 위한 현장 마체검사 마사회 지원
- ('24.11.30) 현장 말 16두, 민간 승마장으로 입양완료 (2개월치 사료 추가지원)

참고2 말 긴급구호체계

□ 말 긴급구호체계 모식도



□ 세부내용 ※ 동물보호법 의거

- 학대가 의심되는 말의 경우 지자체 또는 한국마사회로 신고 접수
- (현장확인) 지자체 담당자가 주체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 필요할 경우 마사회 혹은 말전문수의사 동행
- (보호조치)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 조치
 - * (동물보호법 제34조, 농림축산식품부령) ① 수의사 진단기간, ② 5일 이상
 - (소유권) 소유자가 일정 절차 준수(사육계획서 제출, 보호비용 부담 등)시 격리조치 중인 동물은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
 - (기증·분양) 소유권 포기시 지자체가 동물 인수, 기증 혹은 분양 실시
 - (승용전환 프로그램) 승용 가능한 퇴역경주마일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지원사업」* 참여 유도 및 우선 지원
 - * 전문승용조련 승마장이 입양소유 (6개월 이내 5백만원 훈련비 지원, 더러브렛 복지기금)
 - (인도적인 처리) 지자체가 보호 중인 동물은 질병·위험·입양 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인도적 처리

참고3

2024년 말복지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

가. 추진방향

- (생애주기 맞춤) 출생부터 은퇴 이후까지의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 (사각지대 예방) 학대 말 발생 예방 및 사후 안전대책 마련
- (인식개선) 종사자의 말복지 인식개선을 통해 현장 내 말복지 내재화

나. 주요사업 추진실적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성과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① 망아지 각인순치 지원	•출생 후 사람접촉 늘려 친화성 ↑ •말 스트레스 및 안전사고 ↓	•(신규) 망아지 70두 대상
	② 부상경주마 재활지원	•부상경주마 활용기간 증대 •은퇴 후 건강한 승용마로 전환	•('23.) 50두 → ('24.) 60두
	③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지원	•퇴역경주마가 승용마로 훈련교육 •6개월 훈련비용, 2회 전문심사	•('23.) 68두 → ('24.) 100두
	④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퇴역경주마 승용마 활용 촉진 •은퇴 후 활용방안 다양화	•(신규) 2회 대회 개최
사각지대 예방	⑤ 말복지 컨설팅 지원	•말 복지 취약시설 말복지 컨설팅 •사전·사후 점검(인센티브)으로 실효성 ↑	•('23.) 11개소 → ('24.) 40개소
	⑥ 학대 말 긴급구호체계	•지자체-마사회 협력체계 구축 •동물학대 말 구조·입양 등 적극개입	•(5개 지자체 구축) 말산업특구+충남
	⑦ 말복지 인증제 도입	•자발적 말복지 실천을 위한 인증제 •('24) 시범도입 2개소	•(신규) 2개소 시범도입
인식개선	⑧ 말복지 교육 의무화	•말산업 지원사업 참여자 의무이수 •온라인 교육사이트 구축 완료	•(신규) 1,737명 이수 ('24.12)
	⑨ 명예경주마 휴양사업	•우수경주마 예우 및 관광자원화 •휴양소 방문 고객 59만명('24)	•경주마 5두 휴양목장 2개
	⑩ 말복지 홍보사업	•말복지 홈페이지 구축 및 사업홍보 •박람회, 승마대회 등 행사 중 홍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완료

참고4

2025년 말복지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 (사업범위 확대) 말 산업 관점으로 말복지 지원 확대
- (사회적 요구) 말 복지사각지대 지원강화 및 이력관리 강화

□ (대외협력 강화) 정부·지자체와 협력강화로 사업추진 실효성 확보

나. 말 복지사업 추진체계

운영목표	말 복지 인식 개선 기반의 말 활용가치 제고 및 보호강화		
추진전략 (3개)	① 말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②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③ 말 복지 인식개선
세부과제 (21개)	<p>출생</p> <p>① 망아지 각인순치 지원사업</p> <p>② 각인순치 망아지 성과 추적연구</p> <p>활동</p> <p>③ 부상 경주마 재활지원</p> <p>세부과제</p> <p>④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지원</p> <p>⑤ 퇴역경주마 한정 승마대회</p> <p>은퇴</p> <p>⑥ 퇴역경주마 승용순치 조련 기술 개발</p> <p>⑦ 승용순치·조련 기술 교육</p>	<p>① 말등록·이력관리 강화</p> <p>② 말복지 취약시설 조사 및 컨설팅</p> <p>③ 학대 말 긴급 구호체계 확대</p> <p>④ 말 용도다각화 지원사업</p> <p>⑤ 말복지 인증제 정식 도입</p> <p>⑥ 말 보호시설 설치 지원사업</p> <p>⑦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컨설팅</p>	<p>① 명예경주마 휴양 사업 고도화</p> <p>② 말복지 교육 의무화 및 고도화</p> <p>③ 말 용도별 복지 가이드라인 확충</p> <p>④ 말복지 소통채널 활성화</p> <p>⑤ 국민행사 참여 및 홍보</p> <p>⑥ 말 기증·입양 플랫폼 신설</p> <p>⑦ 은퇴마 '토닥토닥' 국민응원 사업</p>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아지 각인순치(70두) • 경주 중 부상마 재활지원(60두) •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지원(100두) • 퇴역경주마 한정 승마대회(3회) • 퇴역경주마 승용전환율(48%) • 승용전환 순치교육(체류형교육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경주마 확대(10두) • 취약시설 컨설팅(40개소) • 긴급구호체계 확대(9개 지자체) • 말복지 인증시설 정식 도입(2개소) • 말복지 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1종) • 말복지인식도(69점)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5

**동물자유연대 현장 대응 사례를 통해 보는
산업 속 말 복지 문제와 대책**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현장 대응 사례를 통해 보는 산업 속 말 복지 문제와 대책

채일택 전략사업국장(동물자유연대)

1. 유기, 방치된 말 별밤, 도담

○ 개요

- 2022년 8월 충남 부여 폐축사에 말 4마리가 방치되었다는 제보 접수. 무더위와 폭우,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그 중 2마리가 현장에서 사망.
- 구조를 위해 말 소유주를 찾는 과정에서 이용 가치가 상실된 퇴역마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현장에 방치했다는 사실을 확인. 당시 말을 유기, 방치한 사람이 공주 폐마목장 운영자와 동일.
- 당시 방치 학대자를 경찰 고발하였으나, 지역 사회 특성상 제보자가 고발 취하를 강력히 요구해 고발을 취하함.
- 남은 2마리는 단체에서 구조해 제주에 위치한 민간 말 보호시설로 이동 후 위탁 보호하였음.

○ 현장 사진



○ 구조마 정보

- 별밤
 - 2008년 4월 생 더러브렛. 같은 해 6월 경주마 등록 후 2011년 8월 은퇴.
 - 은퇴 후 승용마로 전환되어 11년 간 4곳의 승마장을 거치고 2022년 8월 충남 부여 폐축사에서 발견됨. 발견 당시 호스피아에는 전남 구례 승마장에 있는 것으로 기록.
 - 구조 당시 뒷다리 파행과 심각한 영양 부족 증상 보임.
- 도담
 - 제주마. 출생 시점 확인 불가.
 - 2012년 1월 경기도에 위치한 특수학교에 기증되어 체험 승마용으로 이용.
 - 호스피아상에는 2021년 12월 폐사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2022년 8월 부여 폐축사에서 발견됨.
 - 엉덩이와 왼쪽 뒷다리에 원인 불명의 심각한 외상을 가진 상태로 발견.

○ 문제점

- 두 마리 모두 호스피아 상 기록에 현저한 오류 발견됨.

- 이력 상 오류가 있음에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움.
- 방치 학대 말을 장기간 수용할 보호시설 부재.

2. 서울 기마대 퇴역마 매각

○ 개요

- 서울경찰기마대는 1946년 설립 이후 점차 역할이 축소되면서 근래에는 대내외 행사 등 홍보 역할을 수행해옴.
- 2017년에는 후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됨.
- 그러나 정작 기마대의 핵심이 되는 말은 은퇴 이후 무분별하게 매각 처리되었고 사후 관리 체계도 전무한 사실을 포착.
-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간 매각 내역 확인 결과 8마리를 폐마 처리했고, 1마리는 안락사, 7마리는 승마장, 사슴농장 등에 매각함.
- 2023년 10월, 동물자유연대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매각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 뒤인 2023년 11월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이유로 서울경찰기마대 해체.

○ 문제점

- 기마대 퇴역마 중 2021년 4월에 매각된 더러브렛 2마리(금돌이, 철기병)는 이번 에 문제가 된 공주 폐마목장으로 매각되었으며, 2023년 9월 동물자유연대가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음.
- 2023년 9월 기준으로 호스피아상 기록에서는 두 마리 모두 공주 폐마목장 운영자인 여 모 씨의 소유로 되어있었으며 소재지 또한 충남으로 기록되나, 실제 소재지는 파악 불가하였음.

0012238 금돌이 GEUMDORI 00-0630-D31E

개체식별

변경이력

혈통정보

건강정보

 소유변경이력

소유자	소유자번호	시작일	종료일	소유구분
불명	030068	2024-12-20		
여		2021-04-15	2024-12-19	기타(비코드)
서울지방경찰청	214243	2015-05-29	2021-04-14	기타(비코드)
		2006-11-03	2015-05-28	매입
		2002-02-11	2006-11-02	매입
		2000-04-12	2002-02-10	자가생산

<금돌이 호스피아 기록>

0018275 철기병 CHEOLGIBYEONG 00-0665-8DC0

개체식별

변경이력

혈통정보

건강정보

 소유변경이력

소유자	소유자번호	시작일	종료일	소유구분
여		2021-04-15	2023-12-19	기타(비코드)
서울지방경찰청	214243	2006-12-18	2021-04-14	매입
		2006-06-15	2006-12-17	매입
		2005-06-03	2006-06-14	매입

<철기병 호스피아 기록>

-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경찰청은 “봉사 동물이 은퇴 후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등에 무상증여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경찰기마대를 해체하고 보유한 마필 10마리를 일괄 매각함.

- 국가를 위해 봉사한 기마대 소속 말조차 은퇴한 이후에는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호스피아 또는 그 외 별도의 사후 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은 말 산업 전반에 걸쳐 말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증명함.

3.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 조사 개요

- 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0월
- 장소 : 경기도 내 영업 중인 승마장 28곳, 제주도 내 영업 중인 승마장 20곳, 총 48곳.
- 조사 내용
 - 말산업 및 승마시설 관련 현황 및 법률 조사
 - 해외 문헌 조사
 - 사육환경 및 건강상태, 말의 등록 여부 현장 조사

○ 조사 내용

- 승마시설 관련 현황
 - 2022년 기준, 말 보유 사업체 2,341개소 중 승마시설이 488개소로 20.8%이며, 용도별 말 사육두수는 총 27,631두 중 승용이 13,151두(47.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국내 승마시설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체육시설 승마장’, ‘기타 승마시설’로 분류되며, 각각 273개소(55.9%), 137개소(28.1%), 78개소(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말 사육 현황 및 건강상태
 - 경기도 시설 28곳 중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병변이 있는 개체를 보유한 업체는 15개소(53.6%)였으며, 병변의 종류는 상처나 흉터, 안과 질환, 피부 질환, 비출혈 등. 이상행동을 보인 개체를 보유한 업체는 총 8개소(28.6%)이며, 여물통 씹기(Crib-biting)이나 사물 핥기(Environment lickin), 몸 흔들기(Weaving), 공기 흡입(Wind-sucking)을 관찰함.

- 제주도 시설 20곳 중 육안으로 병변이 확인된 개체가 있는 업체는 14개소 (70.0%)이며, 그 종류는 상처나 흉터, 부분 탈모, 안과 질환, 피부 질환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개체는 총 5개소(25.0%)에서 확인되었으며, 여물통 씹기(Crib-biting), 공기 흡입(Wind-sucking), 사물 핥기 (Environment licking), 몸 계속 비비기 (Rubbing), 꼬리 세게 휘둘기(Tail-swishing), 식분증 (Coprophagia)을 관찰함.

- 말 등록 여부

- 현장 조사 시 관찰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결과, 경기도 승마시설 총 28개 업체 중 23개 업체가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전체 보유한 664두 중 447두(67.3%)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음. 이 중 호스피아에 등록되어있는 두수는 230두. 총 23개 업체 중 17개 업체(73.9%)에서 호스피아상의 소재지와 실 소재지에 오류가 발견됐으며, 등록된 말 총 230두 중 36두가 등록 정보와 실 소재지가 달랐음.

- 제주도 승마시설은 총 2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말의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말 두수로 보았을 때, 총 616두 중 118두(19.2%)가 정보 표시됨. 정보 확인이 가능한 업체 6개 중 5개 업체에서 호스피아상 기록과 오류가 발견됐으며, 총 95두 중 28두(29.5%)가 등록 정보와 실 소재지가 달랐음.

○ 결론

-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 승마장’은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각각 「말산업 육성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법 체계가 이원화되어있어 관리·감독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대상 중 일부는 깨끗한 물, 적합한 먹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등 기본 관리 조차 미비한 시설이 발견됨. 말 관리 또는 말의 사육환경과 관련한 법 조항 신설을 통해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야 함.

- 승마시설에 보유한 말 중 호스피아 등록 내역과 실제 소재지가 다른 사례를 다수 확인. 법 개정을 통한 말 등록 의무화 필요.

4. 종합 의견

○ 앞서 확인한 3건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문제는 말의 이력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촉발됨. 국가 기관에 헌신한 기마대 퇴역마조차 사후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무분별한 폐마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심지어 폐마 목장으로 팔리거나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국내 법과 제도의 미비를 여실히 드러냄.

○ 2022년 별밤과 도담 구조 당시에도 공주 폐마 목장을 운영하던 여 모씨의 문제 행각은 이미 이전부터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한 뒤에야 시민단체의 개입을 통해 폐마 목장을 폐쇄할 수 있었음. 한편으로는 전국에 또 다른 폐마 목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추가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 경주마 은퇴 후 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승마체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개선은 퇴역마 복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일반마 용도 또한 승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법 개정과 담당 기관 관리·감독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말은 동물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의 가치와 복지 수준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효용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임. 해외에는 퇴역마 재활 및 재교육 등을 위한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는데, 미국의 경우 ‘더러브렛 은퇴 관리 조직(TAA, Thoroughbred Aftercare Alliance)’, ‘퇴역마 프로젝트(RRP, Retired Racehorse Project)’ 등이 퇴역마의 재활이나 수요 증대를 위해 활동하며, 영국 또한 ‘영국 더러브렛 재훈련 센터(BTRC, The British Thoroughbred Retraining Centre)’, ‘경주마 재훈련 단체(RoR, Retraining of Racehorses)’ 등의 단체에서 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퇴역마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 이와 더불어 학대 방지 및 피학대 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함. 효용 가치를 상실한 말을 유기, 방치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관행처럼 이루어져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말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피학대 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및 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6

김세현 대표
(비글구조네트워크)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7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퇴역마 생츠퍼리(안식처)’ 방안

김란영 대표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퇴역마 생츠퍼리(안식처)’ 방안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1. 제안 배경

공주시 불법 축사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방치 사건은 경주마 승용마 등으로 이용되다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면 버려지는 말들을 소위 ‘폐마’로 불리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폐마목장’에서 발생하였다.

‘폐마목장’은 그 용어에서부터 생명은 터부시되고 오로지 자본을 우선으로 하는 한국 말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부실한 말이력제, 극소수의 말에 집중된 말복지의 소극적 행정 시스템, 말의 전 생애 복지 법안 부재 등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말산업 관계자의 책임감 부재를 보여준다.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공주시에서 발생한 말 학대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폐마목장 전수조사와 더불어 폐마목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중 경주 승용 등 말산업에 퇴역한 말들을 보호하는 생츠퍼리의 중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퇴역마 생츠퍼리 중요성

경주마 등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 왔으며, 그들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덕적 의무로 퇴역 경주마 생츠퍼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말들의 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 복지, 말산업 윤리, 교육적 가치, 생태적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1) 동물 복지 차원에서의 필요성

경주마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데 최적화된 훈련을 받으며, 어린 나이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경기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관절염, 인대 손상, 골절 등 다양한 부상을 안고 은퇴하고 있다.

대부분 좁은 마구간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가 제한된다. 이런 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일부 말들은 은퇴 후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치료와 심리적 스트레스 치유는 동물 복지에 중요한 기준이다. 생츠퍼리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2) 말산업의 윤리적 책임

경마 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은퇴한 말들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 생츠퍼리는 산업이 단순한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각 단위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경주마를 단순한 경기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생츠퍼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3) 교육 및 공공 인식 개선

생츠퍼리는 일반 대중이 경주마의 현실을 알게 하는 교육적 공간이 될 수 있다. 생츠퍼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퇴역 경주마의 삶을 직접 보고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생츠퍼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동물 돌봄과 존중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4) 생태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

생츠퍼리는 넓은 초지와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 생츠퍼리는 관광지로도 활용되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3. 퇴역마 생츠퍼리의 국내외 대표 사례

퇴역 경주마의 복지와 생츠퍼리 조성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경주마들이 은퇴 후에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생츠퍼리들은 퇴역 경주마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경주마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외 사례로는 미국의 '올드 프렌즈'(Old Friends)와 호주의 '리빙 레전드'(Living Legends) 등 그리고 국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올드 프렌즈'(Old Friends)

'올드 프렌즈'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퇴역 경주마 생츠퍼리 중 하나로 전직 영화 평론가인 '마이클 블로윈'(Michael Blowen)이 2003년에 은퇴한 경주마들에 평생 보호와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켄터키주 조지타운에 위치한 이 시설은 현재 수십 마리의 퇴역 경주마를 돌보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주마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기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경주마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호주의 '리빙 레전드'(Living Legends)

'리빙 레전드'는 2006년에 설립되어 멜버른 근교에 위치한 시설로 호주의 유명한 퇴역 경주마들이 여생을 보내는 곳이다. 이곳은 공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객들에게 경주마와의 교감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경주마의 은퇴 후 삶과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3) 영국의 '로어 필드 생츠퍼리' (The Thoroughbred Rehabilitation Centre, TRC, Lancashire)

'로어 필드'는 1991년에 설립된 영국 최초의 퇴역 경주마 보호 및 재활 센터로 퇴역한 경주마들을 재활시켜 다른 역할(승마, 치료 말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주마의 새로운 역할 탐색(재활, 승용마, 반려마)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말들의 스트레스 완화시키고 있다. 부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말들을 치료 후 적절한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일부 말들은 평생 보호한다.

(4) 일본의 '노던 레이스홀스 리트레이닝' (Northern Farm's Racehorse Retraining, Hokkaido)

'노던 레이스홀스 리트레이닝'은 홋카이도에 2010년대 초반 퇴역 경주마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훈련 센터로 시작되었다. 퇴역 후 재활 및 기초 승마 교육 제공하고 말들이 승용마, 치료마 등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며 일부 유명 경주마들은 보호 목적으로 휴양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 내에서 퇴역 경주마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축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 퇴역 경주마 휴양목장 조성 사업

퇴역 경주마들이 대부분 도축되거나 퇴역 후 용도미정으로 신고되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퇴역 경주마 휴양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제주대학교에 휴양목장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운영지침과 운영비 조성 등이 되지 않아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6) 한국마사회 ‘명예 경주마 휴양사업’

2023년부터 퇴역 경주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 전반의 동물 복지 의식을 높이고자 은퇴한 경주마 중 해마다 특별한 성과를 낸 말을 선정하여 휴양목장에서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퇴역 경주마인 ‘청담도끼’, ‘백광’ 등으로 성적이 우수한 경주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퇴역 경주마 보호 시설 운영의 주요 특징

각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퇴역 경주마 보호 시설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운영 방식

대부분 후원 및 기부로 운영되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고있다.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방문객이 직접 경주마를 만나거나 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2) 퇴역 경주마 관리 방식

① 장기 보호형: 생츠퍼리 형태로 말들을 평생 보호 (‘올드 프렌즈’, ‘리빙 레전드’)

② 재활 및 입양형: 경주마를 재훈련하여 새 가정으로 입양 (‘TRC’, ‘노던 레이스홀스 리트레이닝’)

③ 재활 및 재훈련 프로그램 도입

한 해 퇴역되는 경주마가 더러브렛 기준 1400여 마리로 퇴역마의 건강 나이를 고려하여 단순한 돌봄을 시작으로 승용마 및 치료마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와 일본, 영국 사례처럼 경주마를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④ 대중 참여 확대

휴양목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 운영하여 동물복지 인

식 개선 확대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사진: 김평선

5.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퇴역마 생츄어리’

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개였던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은 절반인 70여 곳만 간신히 남아있다. 사유화된 마을공동목장은 즉각 난개발로 이어졌고 지하수 오염, 탄소 흡수와 저장 감소, 생태적 다양성 축소, 제주 고유 경관자원 훼손 등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전국 초지 면적 중 48%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마을 공동목장은 탄소를 흡수·격리하고 지하수를 보전하며 토양침식 방지 등의 생태적 기능을 한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해안과 산간지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 등 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은 생태적 다양성에 보고이기도 하다.

지난해 제주도는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 마을 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관리 지원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환경과 공동체 이익, 제주사회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다룬 마을공동목장 보전 및 지원방안으로 중 탄소 저장, 동물복지 실현, 생태계 종 다양성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6가지 대책인 △자연 기반 초지 이용 환경 마련 △방목지 회복 및 생태계 다양성 회복 △토지 이용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 축산 경쟁력 확보 △순환 경제 등 부가가치 창출 △마을공동목장 권역별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먼저 마을공동목장을 대상으로 2025년 퇴역 경주마 휴양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퇴역마 휴양목장인 경우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운영지침과 기준, 운영비 확보 등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휴양목장의 목적은 말의 생명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각국의 생츠퍼리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방치 학대마와 말복지의 전반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생츠퍼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시행에 들어간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퇴역마 생츠퍼리 조성 및 운영과 퇴역마 생츠퍼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가령 농림부-제주도-마사회-동물권단체-마을공동목장조합의 거버넌스와 재원 조달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마무리 - 공주시 불법 축사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방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1) 공주시 동물학대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그 시설로 말을 보낸 마주 또는 전 마주들에게 벌칙(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 법적조치)을 부여하는 법 제도 검토와 추진 필요.

(2) 구조마들의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마산업 등 산업에 종사했던 경주마 등이 벌어들인 상금과 재정의 일부를 말복지기금로 배정하여 구조마들을 입양한 기관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사용.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

토론 8

강택 대표
(TK승마센터)

토론문

강택 대표(TK승마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TK승마센터 대표 강택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이렇게 마필의 복지를 생각하여 모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흥대장군”이라는 말을 입양하게 된 사람입니다.
신흥대장군이라는 말은 전에 있던 승마장에서 “브론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많은 승마인들을 가르치고, 많은 회원분들이 좋아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외승을 주로 하던 승마장에서 왔습니다. 브론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애물 시험도 나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던 말입니다.
제가 승마장을 차리면서 이 말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애정이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이를 먹고 안 좋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 누워서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브론즈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단 편히 자연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코치진들 중에 아는 사람이 돌보겠다 하여 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필을 책임지지 못한 것은 저 또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승마장의 실태를 알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승마장들은 그린존/승마장 허가를 낸 사람들만 지원이 있습니다. 허나 그 승마장을 운영하다 힘들어서 저 같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여 말들을 돌 보며 아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승마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정말 아무런 지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승마장 임대를 하고 있는 승마사업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신흥대장군”을 재입양한 것은 저도 책임을 통감하여 그곳에 가서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처참한 몰골이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래도록 보살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힘들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여 극심한 피부병과 영양실조를 극복하여 말도 다시 호전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의 이름은 다시 “해피”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는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는 뜻

에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락사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실질적인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마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라고 생각해 오며 불법승마장 무면허 코치들이 많은 상황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리나라는 축산업 소와 돼지에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하게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마장을 지어놓고 본인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임대를 놓고 그 임대업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좀 유연하게 이러한 정책들을 풀어주시어 말에게 좋은 환경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힘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승마인으로써

말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며 돌보겠습니다. 자리 참석 못하여 죄송하며 두서없이 글을 적었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마필복지에 대하여 현주소를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